

5월 20일(월) / 시편 34~36장

▶내용요약: 34편에서 기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찬양한다. 35편에서 기도자는 한 때 친구와 형제같이 지내던 이들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였건만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36편에서 기도자는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질문: “주를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시 36편)

▶생각하기: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움과 곤고함이 닥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였다.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가?

5월 23일(목) / 시편 73~75장

▶내용요약: 시편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인 73편에서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상하였으나 그들의 결국을 보며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다. 74편에서 기자는 대적에 의하여 더럽혀진 성소를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75편에서 기자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정의로 하실 것이기에 자신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한다고 노래한다.

▶질문: “하늘에서는 ()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 밖에 나의 사도할 자 없나이다”(시 73편)

▶생각하기: 기도자 아삽은 오만한 악인이 형통과 현실적 번영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여 정직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잠시 생각한다. 현실적 헛됨과 번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하가?

5월 26일(일) / 시편 107~108장

▶내용요약: 시편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인 107편에서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한다. 동서남북에서 모인, 즉 축제 예배의 자리에서 기자는 구속자이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련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하여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기자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5월 21일(화) / 시편 42~45장

▶내용요약: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42편에서 기자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과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 이전에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바라며 찬송을 드린다. 43편에서 기자는 불의한 자에게 당하는 자신을 판단하시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낙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찬송하겠다고 노래한다. 44편에서 기자는 이웃에게 모욕과 조소와 비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였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지난 날 자신의 열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니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탄원한다. 45편에서 기자는 왕의 결혼식에서 왕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만민이 왕을 찬송하리라고 노래한다.

▶질문: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이신가?(시 44편)

▶생각하기: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5월 24일(금) / 시편 88~89장

▶내용요약: 88편에서 기자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으니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89편에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그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는 다른 상황임을 열거한다. 그러면서 기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까닭이고 스스로 숨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언제나까지 노를 발하실 것인지 호소하며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에 근거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구한다.

▶질문: “내가 여호와와 ()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하심을 내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시 89편)

▶생각하기: 인생에 고통과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시편 기자는 언제나 이 불행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가?

은 또한 인간의 삶 속에도 복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직한 자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노래한다. 108편에서 기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한다. 그는 모압과 에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노래한다.

5월 22일(수) / 시편 49~51장

▶내용요약: 49편에서 기자는 부귀를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노래한다. 50편에서 기자는 온 세상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서원한 것을 잊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노래한다. 51편에서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백한다. 기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질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을 새롭게 하소서”(시 51편)

▶생각하기: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지은 죄악을 지적받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다. 죄의 지적 앞에 핑계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5월 25일(토) / 시편 90~93장

▶내용요약: 시편의 네 번째 부분의 시작인 90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반면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것으로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덧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자자손손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91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시며 의존자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셔서 영화롭게 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실 이라고 권면한다.

▶질문: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시 91편)

▶생각하기: 시편 기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기에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권면하며 덧없는 인생들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한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 “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을 멸시함이라”(시 107편)

▶생각하기: 시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